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멜로드라마*

—잡지 『여학생』 소설 연구

김양선**

1. 서론
2. 취향의 공동체—세계명작, 대중문화, 그리고 소녀클럽
3. 소녀들의 '건전한' 멜로드라마—순수한 사랑과 우정
4.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60~70년대 문학·교양의 세대적, 젠더적 특징이 교차하는, 잡지 『여학생』 문학란에 수록된 연재소설과 단편소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1960년대 중반 (청)소녀들의 공통 관심사와 감수성을 추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에서는 소설의 특성을 젠더화된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건전한 멜로드라마'로 규정하였다.

'취향의 공동체-세계명작, 대중문화, 그리고 소녀클럽'에서는 여학생들이 영화와 팝송 같은 대중문화부터 서양명작소설과 클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연애 감정부터 실존적 고민까지 공통의 취향과 감수성을 전유하였고, '소녀클럽'을 통해 제도가 요구하는 건전성을 실천하거나 또래문화를 향유한 점에 주목했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4906).

** 한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대학 부교수(강의).

‘소녀들의 ‘건전한’ 멜로드라마-순수한 사랑과 우정’에서는 결합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던 소녀들이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사춘기의 열병을 극복한 후, 학생이자 가족구성원으로 되돌아오는 ‘건전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서사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보았다. 다른 축에는 출생의 비밀, 가족이나 형제자매의 학대, 우연한 만남이나 사고, 낭만적 연애, 금지된 사랑 같은 극적이고 감정 과잉을 유도하는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대중성과 계몽성이 결합된 ‘건전한’ 멜로드라마의 속성을 띠는 것이다.

『여학생』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또래집단의 일상문화와 교양을 습득하고, 남녀 간의 애정이나 열정, 질투와 선망을 뛰어넘는 우정과 연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함으로써 감정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은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지 규범을 소설이라는 완곡한 장치를 거쳐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다른 여성지나 젠더적 성격이 희미한 청소년 잡지와 차별적인 『여학생』지의 고유한 성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여학생』, 청소년, 문학-교양, 취향의 공동체, 서양명작소설, 소녀클럽, 건전한 멜로드라마, 연애, 우정)

1. 서론

1960년대는 공공 담론 장에서 문학-교양의 이념이 잡지, 신문, 제도교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기이다. 때문에 1960, 70년대는 잡지 미디어의 증가 시대, 대중교양의 개념 정립 및 확산 시대라고 불린다. 이 시대적 영향의 자장 안에서 여성들에게 교양으로 할당된 영역은 문

학이나 독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 『여상』 등은 문화나 교양에 관심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독자를 흡수하면서,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여성대중, 여성엘리트들의 지식 및 내면을 주조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1960년대는 문학(문화)-교양이 세대적으로 분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대인 학생을 학술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교양 있는’ 예비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시도된 가운데, 특히 매호 독서와 문학 영역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던 것은 청소년 대상 잡지인 『학원』과 『여학생』의 공통적 특성이었다.¹⁾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전국적 규모로 ‘위로부터’ 시행된 자유교양운동이 근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박정희식 동원정책의 일환이었다면,²⁾ 이와는 다른 ‘아래로부터’ 움직임도 있었다. 『학원』과 『여학생』과 같은 청소년 대상 잡지들을 매개로 읽고 쓰는 문학청년, 문학소녀들의 존재의 부상이 그 예이다.

이 논문은 1960~70년대 문학-교양의 세대적, 젠더적 특징이 교차하는, 잡지 『여학생』³⁾ 문학란에 수록된 연재소설과 단편소설을 본격적으

1) 정미영, 『형성기의 청소년 소설연구-1950년 『학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2) 자유교양추진위원회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해서 ‘대저서(Great Book) 운동’의 일환으로 1968년 11월 23-24일 ‘제1회 대통령기쟁탈전국자유교양대회’를 개최하였고, 1969년 기관지 〈자유교양〉을 발간하였다. 자유교양의 고전읽기는 근대 국민 만들기, ‘민족중흥의 기치를 내 건 민족주의 동원에 독서를 연관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35호, 한국현대문학회, 2011, 285쪽.

3) 『여학생』은 1949년 11월, 1950년 1월, 1950년 3월-1950년 4월까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초기의 4호는 박목월의 주도로 김재인의 재정지원을 받아 만들었던 문학지적 성격이 강했다. 이후 196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잡지로서 출간되었으며, 1990년 재정난으로 폐간할 때까지 약 25년 간 발간되었다. 『학원』과 더불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청소년 대상 종합잡지였다.

로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대 중후반 (청)소녀들의 공통 관심사와 감수성을 추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학생』문학란은 창간 당시부터 독자문예, ‘현상문예작품(懸賞文藝作品)’ 모집,⁴⁾ 순정소설, 명랑소설, 역사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연재소설, 세계명작 다이제스트, 여성작가 중심의 에세이 등을 수록했다. 그런 점에서 1960~70년대 『여학생』문학란은 (여성)문학-교양의 형성, 여성의 대중적 문학/문화 감수성의 형성, 젠더화된 문학 양식, 세계문학의 수용을 비롯한 문화번역, 문학소녀의 형성 등을 밝혀주는 자료가 된다.⁵⁾ 이 논문에서는 이 중 문학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연재소설, 일부 단편소설의 내용, 주제, 양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수록 소설들의 핵심 소재나 주제들의 공통점을 추출하면 당대 (청)소녀들에게 요구된 자질과 감성은 무엇인지, 당대 (청)소녀들의 감성과 취향, 일상을 어떻게 소설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⁶⁾

『여학생』에는 창간호에 순정소설 3편(작가 안수길, 손소희, 이원수), 명랑소설(작가 최요안), 역사소설(작가 최인욱) 총 5편의 연재소설이 실린 이래 매달 작가는 2~3편의 소설이 연재되었다. 역사소설을 제외하면, 이 연재소설들은 청소년, 특히 사춘기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의 감성과 취향, 우정과 연애 감정 등을 그리고 있다. ‘현상문학상’

4) 1966년 3월호에 本誌 創刊紀念參萬圓 ‘懸賞文藝作品募集 要綱’이 처음 실리며, 1966년 8월호에 ‘본지 창간기념 현상문예 입선작 발표(本誌創刊紀念懸賞文藝入選作發表)’ 기사가 실린다. 시 심사자는 박목월, 김남조, 소설 심사자는 안수길, 김동리였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 -잡지 『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을 참고할 것.

6) 이 논문에서는 대상 시기와 자료의 방대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상 시기를 1965년 12월 창간부터 1972년 12월까지 수록된 소설로 한정한다.

수상작들이 수록된 달을 제외하고, 한두 편 정도가 꾸준히 실렸던 단편 소설⁷⁾ 역시 (청)소녀들이 가족구성원과 겪는 갈등이나 우정, 연애 등 이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이 기존 작가들의 연재소설과 단편소설은 대중적 글쓰기라는 친숙한 전략을 구사하여 여학생 독자들의 젠더화된 취향과 감수성을 주조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시기에 발간되었던 잡지 『학원』에 비해 『여학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잡지 『여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김윤경과 정미지, 김양선의 논문이 있다. 그런데 김윤경⁸⁾의 연구는 1949~1950년에 발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방 후 여학생의 글쓰기와 독서경험에 치중되어 있다. 사실상의 창간이라 할 수 있는 1965년 이후 『여학생』의 전모를 밝히고 문학란의 다양한 성격을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미지⁹⁾는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이 청소년을 예비여성으로서 범주화하였으며, 감수성이 ‘소녀적인 것으로 전유되었음을 규명하면서 『여학생』을 부분적인 전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학생』 문학란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김양선¹⁰⁾은 여학생들이 문학란을 통해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화된 감수성과 지식을 습득했다고 보았다. 문학 관련 에세이에서는 서양명작소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고, 현상문예와 여학생

7) 단편소설을 게재한 작가로는 조명호, 김용성, 이호철, 송숙영, 송원희, 강신재, 이문희, 한문영, 박순녀, 오정희, 장편연재소설 작가로는 안수길, 최인욱, 손소희, 이원수, 이청준, 최요안, 유현중, 전병순, 박순녀, 운명혜, 구혜영, 양인자, 김지연, 박은지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편소설 중 김청조, 『독서클럽』(1970.6), 송원희, 『제비꽃 계절』(1970.5)을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다.

8) 김윤경, 『해방 후 여학생 연구-잡지 『여학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4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37-62쪽.

9)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0)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잡지 『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문단은 문학·교양에 대한 지와 감성을 축적하려는 여학생들의 열망이 실제 창작으로 연결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학원』 연재소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정미영의 관점은 대상 시기가 1950년대에 한정되어 있지만 『여학생』 연재소설의 경향과 양식을 검토하는 데 참조가 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 소설의 하위 장르로 명랑소설, 탐정소설과 함께 소녀소설과 순정소설을 언급하고 있다. 소녀소설과 순정소설은 여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장르였는데, 소녀소설은 새로운 민족국가의 일원을 낳고 기르는 모성을 여학생들에게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였고, 순정소설은 여학생들의 연애나 우정을 감상적, 낭만적으로 그리면서 가부장제 질서에 순응하도록 유도했다고 본다.¹¹⁾ 이런 소녀소설과 순정소설의 의미는 『여학생』 연재소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원』이 1959년 11월 순문예지로 전환되면서, 순정소설이 사라졌다고 연구자는 단정하지만, 『여학생』은 1960년대에도 여학생/소녀들의 우정과 연대, 연애감정을 꾸준히 연재했다. 잡지 독자의 젠더적 차이, 취향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학생』 연재소설에 대한 단독 연구로는 희소하게 안미영의 것이 있다.¹²⁾ 이 논문은 구혜영의 『불타는 신록』이 소녀의 건강한 생명력과 성장을 통해 여성 시민의 미덕을 구현하였다고 평가한다. 소녀들의 성장통에 주목한 나머지 청소년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보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한다. 하지만 논의가 소설이 영화 〈여고졸업반〉으로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변용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연재소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11) 정미영, 『형성기의 청소년 소설연구-1950년 『학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7-87쪽.

12) 안미영, 『1970년대 소녀 판타지의 한 기원-구혜영의 『불타는 신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49-185쪽.

본론에서는 『여학생』수록 소설들의 공통된 특성을 ‘젠더화된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건전한 멜로드라마’로 정의할 것이다. 부르디외는 개개인들의 취향, 혹은 선택에 따른 일상생활 속의 실천들이 계급구조의 재생산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책, 음악,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상품의 소비, 의복이나 음식 같은 상품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의 선택과 취향이라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계급적 지위에 의해 내재화된 아비투스¹³⁾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대 간 결속 혹은 세대 간 경계를 강화하고 만드는 기제로서 아비투스¹³⁾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 세대들이 학교라는 제도교육의 장과 가정에서 또래집단의 문화상품을 향유함으로써 공통의 감각을 형성해 가는 것을 ‘취향의 공동체’로 명명하고자 한다. 둘째, 순정소설과 소녀소설에 내재된 멜로드라마적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면에서는 이성애적 연애, 정서적으로는 감정 과잉의 미학을 멜로드라마의 특성으로 지적하곤 한다. 멜로드라마는 악인의 증오, 시기, 질투, 앙심, 악의를 표현할 때 감정 과잉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극단적인 도덕적 불의를 목격할 때의 흥분, 비탄의 감정과 사악한 힘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나오는 동요와 격분을 강렬한 파토스로 드러내기도 한다. 파토스, 과도한 감정, 도덕적 양극화, 선정주의는 멜로드라마의 핵심 구성요소이다.¹⁴⁾ 『여학생』수록 소설들은 멜로드라마의 대중서사의 공식을

13) 아비투스는 개인적 수준을 넘어 집합적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개별 성향의 차이는 사회적 아비투스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계급별 구별 짓기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근거로 부르주아 취향/중간 취향/하층 취향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이 취향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다양한 미적 취향에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담론의 수준으로 미적 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르디외는 학교가 개인의 아비투스를 사회적 아비투스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기제라고 주장한다.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5, 43-44·75쪽.

차용하면서도 연애보다는 우정, 질투와 분노보다는 연대, 성적 욕망을 조율하는 절제력, 가족과 학교라는 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건전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취향의 공동체－세계명작, 대중문화, 그리고 소녀클럽

1960년대 중후반 개발독재시대 이데올로기는 청소년을 근대화에 적합한 국민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이때 남성과 여성에게는 성차에 따라 다른 ‘국민’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에는 남녀 모두 국가재건을 위한 일꾼으로서 청소년을 호명했다면, 중반 이후에는 남학생에게는 강력한 남성성을 요구한 반면, 여학생은 국가 발전을 담지할 미래의 어머니, 현모양처로 호명되었다.¹⁵⁾ 국가재건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거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실력과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를 기점으로 10대의 이성애적 연애에 대한 담론이 잡지에 빈번하게 등장하기도 했다.¹⁶⁾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여학생들은 이성애적 연애와 소비의 주체로 잡지에 등장한다. 하지만 여학생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중 잣대가 적용되었다. 잡지에는 성애화되거나 소비하는 여학생들, 검소하고 순결한 미래의 어머니로 호명되는 여학생들이 공존하였다.

『여학생』연재소설은 여학생 재현의 이중적 국면을 일정부분 반영하

14)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옮김, 문학동네, 2009, 83쪽.

15)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참고.

16)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45쪽.

였다. 연재소설의 서사패턴은 여학생(혹은 소녀)가 어른 세계를 모방하고 모험과 일탈을 꾀하지만 결국 제도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습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여학생들의 일상문화와 취향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간주된 교양을 습득하고 향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과 일탈의 속성을 띠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계발과 개발주의가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했던 문학 교양은 단순하게 국가 차원의 운동이나 칼럼, 에세이에 그치지 않았다. 연재소설¹⁷⁾과 단편소설들에는 당시 여학생들의 독서열을 엿볼 수 있는 편린들이 많이 나온다.¹⁸⁾ 이청준의 소설 『백조의 춤』에서 주인공 미영

17) 『여학생』은 현재 몇몇 결호를 제외하고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연재본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작품 분석 시 인용은 연재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우, 단행본을 저본으로 한다. 단행본 출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혜영, 『불타는 신록』, 성바오로출판사, 1973; 유현중, 『초원의 길』, 여학생사, 1981; 이청준, 『백조의 춤』, 여학생사, 1980; 안호문, 『무지개의 고향』, 평화문화사, 1971; 손소희, 『별이 빛나는 성』, 휘경출판공사, 1979; 김지연, 『사슴의 마을』, 청목사, 1987; 양인자, 『네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 신여원, 1979. 소설 연재 당시 서지사향은 다음과 같다. 손소희, 『별이 빛나는 城』, 1965.12~1966.12; 양인자, 『네가 잊었던 江가의 새벽』, 1965.12~1967.3; 김지연, 『사슴의 마을』, 1967.5~1968.7; 안호문, 『무지개의 故郷』, 1969.1~1969.10; 김지연, 『숲으로 가는 길』, 1968.12~1969.11; 유현중, 『草原의 길』, 1969.12~1971.1; 구혜영, 『불타는 新綠』, 1970.12~1972.3; 이청준, 『백조의 춤』, 1971.2~1972.3.

18) '독서열'의 핵심은 문학에 있었다. 『여학생』은 명작, 고전으로 지칭되는 서양문학의 번역(엄밀히는 축약된 형태의 초역(抄譯))뿐만 아니라 특집이나 에세이 등을 통해 교양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서양)문학은 소녀들의 문학열,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유효한 도구였다. 여학생 독자들의 문학·교양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글들로는 '특별지도(본지 특집부): 젊은 시절에 읽어두어야 할 문학작품(1967년 8월)', '특집 내 인생을 밝혀준 명저, 문예적인 너무나 문예적인(1969년 10월)', '여학생과 문학(양명문, 시인, 이대교수)(1970년 4월)' 등이 있다. 여학생들이 교양을 배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위 베스트셀러가 아닌 고전을 읽는 일이라는 언설은 철학자, 문학교수 등 1960년대 교양주의자들에 의해 여학생들의 감수성(내지 감상성)을 경계하고 문학·교양이라는 여학생들의 '바람직한' 취향을 주도하는 데 적극 전유되었다. 이 교양주의자들은 청소년들이 읽을 문학작품

이네 집에 와 지내고 있는 이종사촌 ‘지훈’은 앙드레 지드의 『전원교향악』을 읽고, 발레를 하는 미영은 클래식 〈백조의 호수〉를 즐겨 듣는다.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던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는데, 이들의 연애감정을 우회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지훈이 미영이네 집을 나온 뒤에도 〈백조의 호수〉를 듣고, 미영이 『전원교향악』을 읽는 것이다. 서양명작소설과 고전음악이 둘의 순수한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바람직한 문화적 취향으로 제시된다. 소설 말미에 미영이 지훈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앙드레 지드의 다른 작품 『좁은 문』이 언급된다. 사촌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견뎌냄으로써 아름다워지는” 사랑을 다룬 『좁은 문』은 이종사촌 사이인 미영과 지훈의 연애감정을 서양문학이라는 의장을 거쳐 지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유현종의 『초원의 길』에는 여고 프랑스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나의 청춘 마리안느』를 낭송하는 낭만적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여학생들이 개고기념일에 공연할 연극으로 알베르 까뮈의 『오해』를 연습한다. 구혜영의 『불타는 신록』에서 유시내의 장래 희망은 “댄스필드같은 투명한 예지로 반짝이는 주옥 같은 단편”을 쓰는 것이다. 시내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은 감상을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문학소년’ 훈과 시내가 친해지는 것도 헤세의 『데미안』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이다.

훈이는 지금 읽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작품을 이해하기는 좀 벅차. 헤세를 청춘의 작가라고 한

목록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전원교향악』,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연재소설 속 문학소년, 문학소년들의 독서 취향은 이런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잡지『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6-38쪽 참고.

다지만 그것은 헤세가 소년 소녀 소설가라는 뜻이 아니고 작품의 테마를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같은 아이들에게서 구한다는 뜻이겠지.”

“물론이야. 나는 아직 『데미안』은 못 읽었어. 『차륜 밑에서』라든가 『성모의 샘』 같은 건 읽었지만 역시 좀 어려운 것 같애. 우리 엄마도 헤세의 애독자인데 말이야.”(130~131쪽)

이어지는 대화에서 훈은 ‘싱클레어’를 자신에, ‘데미안’을 시내에 비유한다. 각주18)에서 밝혔듯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과 함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교양주의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소설 목록의 앞자리를 장식하고 있거니와¹⁹⁾ 이 문학소녀와 소년은 교양 있는 청소년이 응당 갖춰야 할 서양명작 중심의 문학 취향을 체화한 존재로 입상화되는 것이다. 『불타는 신록』에서 시내는 현기목 선생과 마찬가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파르티트를 좋아하며, 클래식 음악 전문점인 찻집 〈고전〉에 드나들고, 클래식 음악회를 즐긴다. 이와 같은 시내의 취향은 등산과 대중음악 감상실, 하이킹을 즐기던 당시 청소년들의 취향과는 사뭇 다른 것이지만 또래 여학생들과 시내를 구별 짓는 부르주아 교양의 일환으로 형상화된다.

김청조의 단편소설 『독서클럽』은 아예 소설 제목에서부터 ‘독서’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병원에 입원한 여고생 혜연은 학교 독서클럽 회원인데,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입회자격이 생기고, 한 달에 세 권 이상 읽고 독후감을 써서 서로 돌려보는 활동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19) 한국에서 헤르만 헤세와 『데미안』이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1960년대 중반 전혜린의 요절과 유고수필집 출간, 그리고 출판사의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전혜린을 매개로 불어 닦았던 헤세 열풍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미국은 헤세 붐의 중요한 진원지였는데, 히피 문화와 관련된 동양적 신비주의와 유럽의 실존주의가 혼합된 1970년대식 ‘실존열’이 원인으로 제시된다. 한국에서의 헤세 수용도 1960년대 실존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65-66쪽.

이들이 읽는 책의 목록은 러셀의 자서전, 사르트르의 『구토』, 카뮈의 『표리』와 같은 실존주의 책이다.²⁰⁾ 친구가 병문안 차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독서가 어떤 공공적 의미를 지녔는지 알 수 있다. “나는 학교 교육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책을 읽고서 내가 무엇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조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 (…중략…) 나와 사회, 그리고 조국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는 것이다.” 제도교육 외에 독서가 국민 만들기의 주요 소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국가 주도로 진행된 교양, 그 중에서도 문학·교양이 소설이라는 의장을 거쳐 여학생들에게 내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중음악과 영화와 같은 하위문화도 여학생들의 취향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양인자의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에서 예고졸업반인 두라, 수희, 영애 등은 자신을 ‘아지따또’의 아이들이라 부른다. 이들이 기성세대의 규제와 비난을 거스르며 청춘을 향유하는 방법은 고고홀인 아지따또를 드나들며 빌보드지 차트에 오른 노래, 엘비스 프레슬리, 애니멀스의 팝송을 즐기는 것이다. 한문영의 단편소설 『소야곡』에서도 여고생 수련은 다방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톰 존스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 유행하는 팝송에 민감하고, 고고홀이나 다방, 술집을 드나드는 이들의 행위는 1960, 70년대 대중문화와 소녀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양고전문학이나 고전음악과는 다른 취향의 공동체와 감수성을 이 여학생들이 전유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취향의 공동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소녀클럽’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소녀클럽은 또래집단의 아비투스²¹⁾를 반영하고 있다. 연

20) 치세관련 서적과 실존주의 붐은 천정환, 『치세, 교양, 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화사연구』 40호, 민족문화사학회, 2009를 참고할 것.

재소설들은 소녀들의 갈등과 우정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비슷한 경제 조건, 취미를 가진 이들의 커뮤니티를 ‘소녀클럽’이라 명명한다. 여학생들은 소녀클럽을 통해 제도가 요구하는 건전성을 실천하거나 또래문화를 향유한다. 이청준의 『백조의 춤』의 미영과 친구들은 ‘무지개클럽’의 회원들인데, 이들은 학교 안에서 “모두 쟁쟁하게 이름이 알려진 유지급 인물들”이다. 클럽 이름이 ‘무지개’인 것처럼 회원 수도 일곱 명으로, 각자 농구, 글쓰기, 무용, 연극, 그림, 노래, 사진 같은 특기를 가지고 있다. “무지개 클럽은 P여고의 인재들이” 모인 유쾌하고 명랑한 커뮤니티로 소개되고 있다. 유현종의 『초원의 길』에서 내성적인 성격의 여학생 수미가 속해 있는 Q여고 2학년의 클럽도 가정적으로 유복하고 공부도 웬만큼 하는 친구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선생님이나 대학생에 대한 감정을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밝히고, 경제적 결핍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요컨대 ‘소녀클럽’은 성별화된 또래 집단으로서 자유롭고 명랑하되 가정이나 학교 제도가 요구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선생님이나 대학생을 두고 친구들끼리 질투, 선망 같은 감정적 갈등을 겪더라도 결국은 우정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공동체로 나온다. 소설 속에 그려진 소녀클럽의 존재는 같은 또래 여학생 독자에게 ‘명랑’, ‘건진’, ‘우정’과 ‘연대’라는 청소년(녀)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자질을 학습케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21) 『여학생』은 창간사에서부터 “미래의 모상(母象)인 여학생들의 건전한 교양과 아름다운 정서배양”이라는 ‘소녀상’ 정립을 잡지의 고유한 매체 전략으로 내세웠다. ‘바람직한 소녀입상(박기원, 소설가)’은 당대가 바람직하다고 여긴 ‘소녀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의 바람직한 소녀의 입상은 속으로는 따뜻한 열정을 품고, 겉에는 서늘한 지성과 이지가 조화된 열과 냉의 극치를 겸한 소녀. 아름답고 우아하고 발랄하고 겸손할 줄 아는 소녀의 모습이다.”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잡지 『여학생』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4쪽.

소녀클럽의 또 다른 특성은 이들이 학교 밖에서 여가생활을 하면서 등산, 하이킹, 야유회와 같은 당시 중산층에서 누릴 법한 문화를 향유하였다는 점이다.²²⁾ 가령 유현종의 『초원의 길』은 수미와 친구들이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대학생 청년 원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수미만 시골 출신인 아버지가 전쟁통에 도움을 주었던 덕에 후원자로 나선 교문 씨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이고,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골프를 즐기거나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 출신이다. 수미의 시골집에서 망년회를 하기 위해 소녀들은 카메라, 녹음기, 포터블 전축과 디스크뿐만 아니라 통닭과 케이크 같은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떠나기도 한다. 요컨대 이 소녀들의 명량과 자유로움은 이들의 계층적 기반이 안정적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열거한 여가생활과 소비재는 이들의 취향을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연재소설이나 단편소설들은 영화와 팝송 같은 대중문화부터 서양명작소설과 클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연애 감정부터 실존적 고민까지를 아우르는 여학생들의 문화와 취향을 서사에 배치하였다. 그렇다면 소설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는 ‘취향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지역과 계층 등 청소년 내부의 다양한 층위와 위계들을 포괄하기보다는 서울 중산층 가정,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의 또래문

22) 송은영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로 1966년 경제성장률이 13.4%를 기록하면서 여가문화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독서, 음악감상, 영화감상과 같은 통상적인 여가 외에 경제적, 문화적 상류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꽤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산, 낚시, 하이킹과 같은 야외 레저 활동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이 활동들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자 서구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1966년을 기점으로 바캉스, 주말 시골여행, 피크닉, 하이킹과 같은 여가의 야외화는 도시 중산층과 화이트칼라 계층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송은영, 「1960년대 여가 또는 레저 문화의 정치」, 『한국학논집』 51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77·89쪽 참고.

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위 불량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 여공, 식모 등은 배제되어 있다.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가난 구제를 목적으로 상경한 식모나 여공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이들의 목소리나 처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통념 속에서 정상성의 경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비슷한 또래의 독자들은 동시대에 유행한 서구 대중문화와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서양명작소설 속 인물들에 자신의 사연을 대입하면서 모종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요컨대 사춘기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과 일탈 욕망을 일정 정도 승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취향의 아비투스(habitus)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하지만 이 취향의 공동체가 제도와 통치 이데올로기의 안정성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백조의 춤』의 미영과 지훈, 『불타는 신록』의 시내와 훈 등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것, 세계 명작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은 위로부터 강제된 통치 이데올로기와는 별개로 부르주아 취향을 매개로 연애감정이든, 우정이든 상대방과 교감하기 위한 자발적 욕망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싶다. 이 청소년들은 취향의 발견을 토대로 연애와 우정의 감정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 속물적인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 형성의 의지는 비록 자기계발과 계몽의 문화적 버전이라 할 지라도 청소년 세대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소녀들의 ‘건전한’ 멜로드라마—순수한 사랑과 우정

『여학생』 연재소설은 창간호를 비롯한 초기에는 역사소설, 순정소설, 명랑소설 등 하위 장르의 명칭을 따로 붙였으나, 해가 갈수록 이 명칭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양인자의 『네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에는 ‘문제소설’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는데, 이는 하위 장르와는 상관없는 소위 문제학생이나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다룬 소설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하위 장르로서의 변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채 잡지사의 편집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위 장르의 부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명칭이 ‘명랑소설’, ‘소녀소설’ 정도였다면, ‘소녀소설’, ‘하이틴 소설’과 때로는 겹치고, 때로는 경합하던 ‘순정’ 장르는 195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1950년대부터 소녀들의 성장과 사랑을 다룬 대중적 이야기는 통상 ‘순정’소설, 순정 장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졌다.²³⁾ 특히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대중매체의 순정 서사물들이 성인 잡지에서 유통된 사랑 이야기에서 어린이 잡지로 이동하면서 순정의 의미망에서 사랑이 탈각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분석은 『여학생』 연재소설의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²⁴⁾

23) 만화를 중심으로 순정장르의 성립을 다룬 서은영은 ‘순정’장르 혹은 순정서사는 식민지기 남녀 모두의 순수한 감정을 나타내던 것에서 1950년대 초반 여성화된 감정으로 젠더화되어 갔다고 말한다.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64-165쪽.

24)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69쪽. 오세란은 196~70년대를 거치면서 청소년은 (증가하는 중등, 고등 진학률로 인해) 곧 학생이라는 등식이 확립되었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소설, 명랑소설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순정소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즉 하위 장르의 젠더화 양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학생』이 순정소설이 게재된 대표적인 매체라고 보고 있다. 순정소설은 여학생들의 풋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리거나 죽음이나 질병에 걸린 여성을 통해 감상적인 정조를 띠면서 여학생 독자의 감성성을 고양하는

『여학생』 연재소설은 서사문법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주인공 여학생은 모종의 결핍 상황에 놓여 있다. 아버지 없는 모녀 가정에서 자라거나(구혜영 『불타는 신록』), 아버지의 재혼으로 아버지, 새어머니와 불화하거나(양인자 『네가 잊었던 강가의 추억』), 어머니가 나환자여서 줄곧 격리되어 살다가, 소록도를 떠나 낯선 아버지 가족에 편입되거나(김지연 『사슴의 마을』), 혼혈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거나(안호문 『무지개 고향』),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홍성원 『기찻길』), 부모의 행방을 모른 채 친척뻘인 분의 집에 얹혀 사는(손소희 『별이 빛나는 성』) 상황이다. 이처럼 온전한 가족을 갖지 못한 소녀들은 아버지, 혹은 유사 가족의 오빠나 자매와 갈등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학교 제도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런 갈등은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과 연민의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자격지심, 알 수 없는 우울과 허무함과 같은 사춘기 정서와 맞물리면서 증폭된다. 그 여파로 소녀들은 가출을 하거나 고고회를 드나들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을 감행한다. 요컨대 소설은 결함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소녀들이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사춘기의 열병을 극복한 후, 원래의 가족과 학교로 되돌아오는 ‘건전한’ 결말로 끝난다.²⁵⁾

미성숙한 주체가 모종의 신체적, 정신적 시련을 겪은 후 기존 사회에

효과가 있었다. 오세란, 『한국 청소년 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105쪽.
 25) 서은영은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작품의 이야기 구조의 특징으로 ①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②소녀의 결핍상태는 주로 신체적 장애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파괴를 수반하며, 이들은 가출이나 우연한 사고, 탈선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되지만 가족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유사가족을 만난다. ③자기 처지에 대한 연민이나 비하를 동반한 신뢰성을 띤다(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71쪽)는 점을 든다. 순정만화와 순정소설의 서사가 가진 이런 공통적 특징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차원의 재난 내지 폭력 상황이 야기한 가족 해체와 전후 새로운 가족 민족국가의 재건이라는 과제가 195~60년대 청소년 소설에서 어떻게 대중적으로 변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편입되는 성장서사의 공식이 계몽성의 축을 이룬다면, 다른 축에는 출생의 비밀, 가족이나 형제자매의 학대, 우연한 만남이나 사고, 낭만적 연애, 금지된 사랑 같은 극적이고 감정 과잉을 유도하는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내가 잊었던 강가의 추억』에서 아지따또의 방황하는 아이였던 두라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은 ‘집시소년’으로 불리는 대학생 영국이다. 그는 두라에게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처리하고 지나간 것은 이미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쉬운 것에만 관심을 쏟는” 자기 회피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그의 최종 메시지는 “공부해야 돼.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은 와류(渦流) 속에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기 내부에서야. 자기 내부를 파고 들어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조언을 듣고 두라는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들의 풍기 문란과 소비 풍조를 대학생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기존 질서로의 편입이라는 안전하고 건전한 결말을 택한 셈이다.

김지연의 『숲으로 가는 길』의 주혜는 “문화적인 가구와 장서”로 치장된 중산층 부르주아 집에서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가출을 일삼다가 시골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는 불량청소년이다. 그녀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생활에 진저리가 쳐져서 어디로든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일탈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병적으로 결핍된 아이”, ‘외로운 아이’로 규정하거나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가족이나 주위 어른들은 주혜를 “골치덩어리, 괴팍스럽고 다루기 힘든 계집애”, “옳은 길로 가기는 이미 틀린 애”로 낙인찍는다. 하지만 주혜가 일탈을 일삼는 이유는 속물 취향의 교양으로 치장했지만 실은 아버지의 외도와 불화, 자매 간의 시기심으로 와해되어 가는 가족에 대한 반발, 어른 세대의 권위의식에 대한 경멸심 때문이다. 주혜는 “저마다 각기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기

가족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지칭한다. 그런 주혜가 반항심과 방황을 멈추고, 타인을 이해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 경멸심을 갖기 전에 나는 이 답에 완전한 어른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심경의 변화와 자기를 모함하던 언니 미혜가 사실은 친자매가 아니라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한 엄마 친구의 딸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면서이다. 요컨대 이 소설 역시 사춘기 소녀의 감정과 잉과 알 수 없는 우울, 반항심리를 부모의 외도와 출생의 비밀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와 결합해 그리면서도 심층적으로는 전후 국가 재건의 와중에 빚어진 가치관의 혼란,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속물성을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네가 잊었던 강가의 추억』, 『숲으로 가는 길』은 물질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모 세대에 대항하여 자기만의 성장 공식을 만들어가는 젠더화된 교양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녀들, 그리고 이 소녀들과 연대하는 청년들은 낡은 질서를 대체할 건강성을 내장하고 있다. 『초원의 길』의 혜진이나 『사슴의 마을』의 화래는 수미나 형희와 유사 자매관계에 있으면서 미묘한 갈등을 겪기는 하나 불우한 주인공의 처지에 공감하고, 자매애적 연대를 성취한다. 『무지개 고향』에서 주인공 루이지는 양공주였던 어머니가 미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이다. 이복동생 형규도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부남과 혼외 관계를 맺으면서 태어난 아이이다. 여기에 탐욕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의붓아버지의 운전사가 그의 친아들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설은 선정적인 요소를 띠는 듯하다. 친구 효숙의 사촌오빠인 상욱과 그가 돌보는 구두닦이 소년들은 전쟁고아들이다. 정상가족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어린이, 청소년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과 가난 때문에 고난에 처하지만 이들은 자기 수양과 도덕 감정으로 이를 이겨낸다. 루이지는 헬렌 켈러

전기류의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욱은 고학으로 대학입시 준비와 전쟁고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의붓오빠인 운전사가 살인 혐의로, 어머니가 공범으로 지목되어 감옥에 가자, 루이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소설은 루이지가 상욱과 함께 학원을 열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에 뛰어드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혼혈, 사생아, 살인, 범죄와 같은 선정적인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면, 수양과 절제, 교육, 루이지를 지지하는 소녀들의 연대와 우정은 소설이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독려하고자 하는 품성이라 할 수 있다. 예의 대중성과 계몽성이 결합된 '건전한' 멜로드라마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구혜영의 『불타는 신록』은 여학생 성장서사의 전형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은 '유시내'라는 순수하고 건강한 심성의 여고생이 학교제도에서 친구들과 겪는 갈등, 미혼모의 딸이라는 사회의 편견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어머니의 병 요양 차 호반의 도시 Q에 온 유시내는 흰샘고등학교로 전학 와서 서울에서 온 자신을 경원시하는 친구들과, 교복부터 두발까지 단속하는 학교의 규율과 갈등한다.²⁶⁾ 단발이 교칙인 학교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엄마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학칙위반이며, 음악회를 가더라도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것은 또래들에게 질투와 선망의 대상이 된다. 시내는 이런 규율의 부조리함에 맞서지만 결과는 급우들이 시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규율 위반은 현모양처형의 순종적인 여성을 바람직한 상으로 제시했던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의 의

26) 생활지도선생이자 생물을 가르치는 강신옥 선생은 소설 처음에는 규율과 감시체제의 학교 교육제도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기습'이라 알려져 있는 불시의 '속옷검사'는 깨끗한 속옷을 '진정한 의미의 숙녀'의 기준으로 삼는 여성 행실의 예를 보여준다.

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내의 건강한 심성과 친구들과의 갈등을 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들의 갈등은 담임인 현기목의 사직을 계기로 해소되고, 시내와 반 친구들은 사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우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성장을 추동하는 또 다른 축은 사춘기 소년 소녀 사이의 감정적 유대에 기반한 우정과 현기목 선생님을 연모하는 감정을 시내가 어떻게 조련하는가에 있다. 시내는 독서와 클래식 음악 취향이 비슷한 선생님을 사랑하면서 열병에 시달리는 성장통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 같은 세대인 훈이와 우정을 지속한다.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시내는 이 긍정적 자질로 어른들을 교화한다. 교칙을 엄격하게 고수했던 강신옥 선생님이 유연하게 바뀌고, 엄마의 병을 돌봐주던 의사 김광진의 부인이자 훈의 어머니인 신숙정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던 성정을 바꾸게 된다. 소설의 끝에서는 아버지를 찾게 됨으로써 소설은 교양과 지성을 갖춘 중산층 가족의 완성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겼던 이상적인 가족과 청소년 상에 가까운 것이다. 소설 제목 『불타는 신록』은 건전한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소설 속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이자 주인공 ‘유시내’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청소년(녀)은 “높이를 모르게 치솟으려는 새순”,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 주위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 창조의 능력을 주는 존재로 표현된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의 연대와 우정, 남학생 훈의 성장과 성숙을 추동하는 존재가 여학생인 시내라는 사실이다. 훈이는 ‘시내의 친한 벗’이 되기 위해서는 “시내의 맘을 끌 수 있는 훌륭한 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육체부터 단련”하기로 결심한다. 아침마다 맑은 물을 마시고, 줄넘기와 달리기로 몸을 단련하면서 훈은 “깨끗한

몸과 마음”, “굳은 정신과 육체”를 조련한다. 즉 철학자, 몽상가, 문학소년이었던 훈은 시내와의 우정을 완성하기 위해 육체와 정신이 통합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당대 학교교육·체육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학생』 소설은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연애’를 서사화할 때에도 여타 대중소설에서 볼 수 있는 자극적이거나 열정적인 사랑을 그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생님이나 친척 오빠에 대한 연모의 감정은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작용한다. 일방적인 낭만적 동경과 연애 감정의 대상이었던 친척오빠나 선생님은 주인공의 성숙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한다. 같은 세대 남녀주인공의 연애담은 주로 ‘순정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세계인식이 주를 이룬다. 사춘기 소년 소녀 간의 연애 감정은 욕망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감정, 헌신성, 우정과 연대감과 같은 윤리적 선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송원희의 『제비꽃 계절』은 사춘기 남녀의 교제를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너희들 틈에이저의 이성관계는 역시 우정일거야. 그래서 보이 프렌드라고 하지 않아. 프렌드란 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냐. 보이프렌드와 접촉하면 자기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하고 말야. 그런 우정은 참 훌륭하고 자유스럽지. (...중략...) 사춘기에 남녀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교우를 가진다는 것은 요다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보다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훈련도 되는 거야.” 즉, 연애보다는 우정이라는 규제적 담론을 소설이라는 장치를 통해 구사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건전함, 계몽성 이면에 있는 ‘극적인’ 사건이 대체로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대중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가출한 자신을 찾으러 온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김지연 『사슴의

마을』, 손소희 『별이 빛나는 성』), 학교 선생님을 사모하거나 먼 친척 오빠를 사랑하다가 실연당해 거리를 떠든 끝에 심한 병을 앓거나(이청준 『백조의 꿈』, 구혜영 『불타는 신록』),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유현중 『초원의 길』) 식이다. 교통사고, 불구, 낭만적 사랑과 실연 끝에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녀의 창백한 얼굴은 여학생 독자들에게 현실과는 다른 낭만적 삶을 꿈꿀 수 있는 장치로 기능했을 것이다.²⁷⁾ 이 소녀들의 성장 서사이자 낭만적인 연애서사는 ‘건전한’ ‘멜로드라마’이다. 여러 논자들의 말처럼 멜로드라마의 수사적 ‘과잉’은 인물들의 감정에 주목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실연, 이별, 감상, 우울, 염세주의, 범죄, 출생의 비밀 등은 (청)소녀들에게 감정의 격동을 야기한다. 하지만 소설은 당대 사회가 청소년에게 요구했던 고난의 극복, 가족 혹은 유사 가족 공동체로의 회귀라는 ‘건전한’ 결말로 끝난다. 교육과 정서적 위안, 이 두 요소의 결합이 『여학생』 연재소설의 특성으로서, 건전성과 불온성 사이에서 청소년들의 감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27) 이런 연재소설의 경향은 ‘여학생 현상문예’에 응모한 여학생들의 글쓰기 경향과도 호환된다. 1970년 5월 ‘창간4주년 여학생문학상’ 발표와 함께 실린 기자들의 방담회에 따르면 소설 응모작에 나타난 여학생들의 관심사는 “사실 면보다 낭만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며, 작품 소재나 주제로는 “우정, 우애, 연정, 향수, 실의, 이상, 동심, 배신, 자의식, 극기심, 허무의식, 추억, 실연, 이별, 감상, 허영 등 여학생의 감정세계의 파노라마를 그렸다. 제시된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 여학생들의 고유한 감정세계는 우정, 연정, 실의나 실연, 이별, 감상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재가한 어머니와 계부 계모에 대한 것’, ‘이부모와의 갈등’, ‘순애와 ‘순정’에 가까운 사랑 등은 여학생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였다.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잡지 『여학생』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42-43쪽.

4. 결론

잡지 『여학생』 문학란은 여학생 독자를 위한 교양교육의 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화된 공통의 감성구조 및 지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문학란에 수록된 소설들은 당대 사회가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보여준다. 소설 제목에서부터 청소년의 밝은 미래상을 상징하는 녹색(『초원의 길』, 『불타는 신록』), 희망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무지개 고향』)를 제시하고 있다. 소녀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성정(『별이 빛나는 성』), ‘높이를 모르게 치솟으려는 새순’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창조의 능력을 주는 존재(『불타는 신록』)로 입상화 된다. 순진성, 건강함, 결핍을 이겨내는 정신적 강인함과 같은 비젠더적 속성부터 내성적, 조신함, 예민함, 감상성, 낭만성과 같은 감정의 젠더적 속성까지 여학생이 갖춰야 할 자질로 제시된다. 『여학생』은 순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불타는 신록』의 시내처럼 지혜롭고, ‘소녀클럽’의 친구들과처럼 문화·교양을 향유하는 (청)소녀의 이미지를 창조했다.

이처럼 『여학생』은 청소년(녀)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지 규범을 ‘소설’이라는 완곡한 장치를 거쳐 재생산하는 장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의 경우 대개 세계와 자기를 이해하고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양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여성 젠더에게 한정될 경우, 그리고 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계몽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소설들을 예비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가다듬기 위한 매체 전략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여학생』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또래집단의 일상문화, 교양을 습득하고, 남녀 간의 애정이나 열정, 질투와 선망을 뛰어넘는 우정과 연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습

독함으로써 감정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때로는 능동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여학생 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다른 여성지나 젠더적 성격이 희미한 청소년 잡지와 구별되는 『여학생』지만의 고유한 성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여학생』, 1965.12~1972.12.
구혜영, 『불타는 신록』, 성바오로출판사, 1973.
김지연, 『시슴의 마을』, 청목사, 1987.
손소희, 『별이 빛나는 성』, 휘경출판공사, 1979.
안호문, 『무지개의 고향』, 평화문화사, 1971.
양인자, 『네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 신여원, 1979.
유현중, 『초원의 길』, 여학생사, 1981.
이청준, 『백조의 춤』, 여학생사, 1980.

2. 논문과 단행본

- 권보드래,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_____,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 잡지 『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7-49쪽.
김윤경, 『해방 후 여학생 연구-잡지 『여학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4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37-62쪽.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3-374쪽.
박숙자, 『"문학소녀"를 허하라-4·19 이후의 '문학/청년'의 문화정치학』, 『대중서사연구』 20호, 대중서사학회, 2014, 37-66쪽.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47-177쪽.
송은영, 『1960년대 여가 또는 레저 문화의 정치』, 『한국학논집』 51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71-98쪽.
안미영, 『1970년대 소녀 판타지의 한 기원-구혜영의 『불타는 신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49-185쪽.
오세란, 『한국 청소년 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오세란, 『1960년대 독서 환경과 청소년 독자』,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3, 83-104쪽.
-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3-76쪽.
- 정미영, 『형성기의 청소년 소설연구-1950년대 〈학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천정환, 『처세, 교양, 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화사연구』 40호, 민족문화사학회, 2009, 92-134쪽.
- _____,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35호, 한국현대문학회, 2011, 281-315쪽.
- 허 윤,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대중서사연구』 20호, 대중서사학회, 2014, 103-130쪽.
-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5.
-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옮김, 문학동네, 2009.

Abstract

The Community of Taste and Girl's Melodrama
—A Study on the Novel in *Girl Student* (Ryeohakseng)

Kim Yang-Sun(Hallym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d the serial novels and short stories in the magazine *Girl Student*, which crossed the generational and gender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culture in the 1960s~1970s. The purpose was to extract the common interests and sensibilities of girls and to ultimately signify their collective identity of the middle of the 1960's.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novels are defined as gendered 'community of taste' and 'girl's pure melodrama'.

In 'community of taste-western classical literature, popular culture, and girl's club', I noticed that the girls have appropriated common tastes and sensibilities from popular culture such as that ranging from movies and popular songs to western classical novels and music, from pure romantic feelings to existential anguish. They practiced the required moral soundness but also enjoyed their peer group's culture.

In 'girl's 'pure' melodrama-pure love and friendship', I saw that the novels ended well that the girls who wanted to escape from their defective family, became enlightened by dramatic events, overcame puberty, and returned to the institution of school and famil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melodramatic element that induced dramatic and emotional excess such as the secret of birth, the abuse of family or siblings, accidental encounters or accidents, romantic love, or forbidden love. That is,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pure' melodrama that combined popularity and enlightenment.

The readers of *Girl Student* could acquire the daily cultures and the cultures of their peer group,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and solidarity beyond love and passion, jealousy and envy between men and women. So they could form a community of emotions. In conclusion, *Girl Student* reproduced the education and norms for the teenage women through the euphemistic device of the novel.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Girl Student*,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women's

magazines or gender-neutral magazines for teenagers.

(Keywords: girl student, teenage girl, literature-culture, community of taste, western classical novel, girl's club, pure melodrama, love, friendship)

논문투고일 : 2018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2월 6일

수정완료일 : 2018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2월 13일